



8

텐슈카쿠(天守閣)

외관 4층(내부 6층 3중) 높이 18.5m의 망루형 천수로, 창건 당시의 양식을 답습하여 1749년에 재건되었다. 팔각 지붕과 그 위의 카라하후(唐破風: 중앙 부분이 아치형이고, 양끝이 약간 치켜 올라간 곡선 모양으로 된 박공(鰭)·역주), 검은 옷으로 칠해진 난간이 특징적이다. 일층 북동 모서리에는 현존하는 것으로는 전국 유일의 철책(‘시노비기에서’(忍び返し) 적을 막기 때문에 특출한 창살(槍矢)을 박아 두었다·역주)도 있다.

本丸

○ 혼마루의 순로

직선루트

8min
오테문(鎗手門)~혼마루(本丸)까지 약 8분. 급경사 계단이 이어지지만, 가장 빨리 혼마루(本丸)에 도달할 수 있는 루트입니다.

느린루트

20min
스기노단(杉ノ段·삼목단)에서 우메노단(梅ノ段·매화단), 산노마루(三ノ丸)를 경유. 그리 알려지지 않은 루트이지만, 흔히 볼 수 없는 성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테문(鎗手門)~혼마루(本丸)까지 약 20분.



9 일본 유일의 유구, 혼마루어전(本丸御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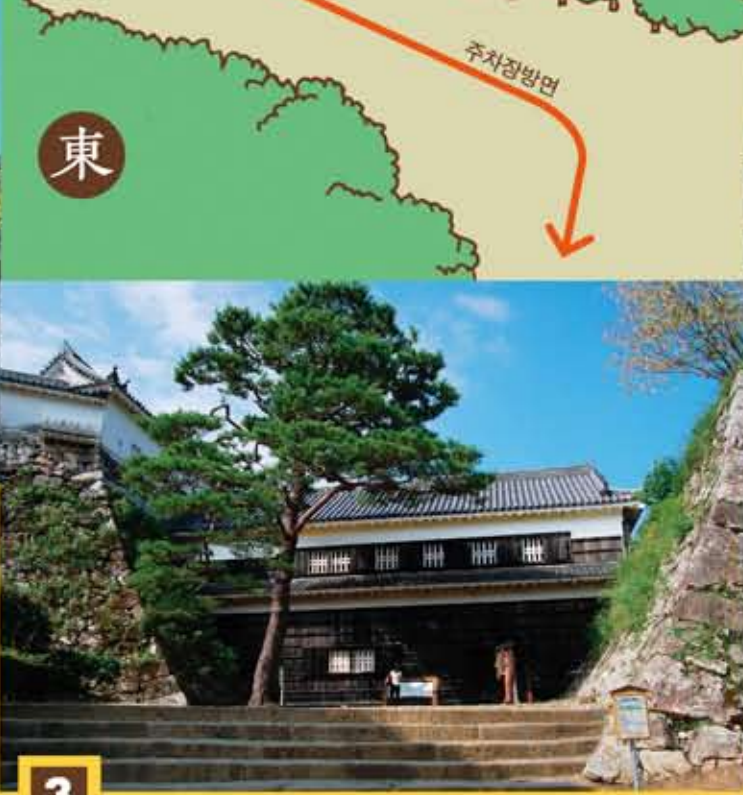
혼마루(本丸)에는 텐슈카쿠(天守閣), 혼마루어전(本丸御殿), 난도구라(納戸蔵:창고·역주), 복도문, 히가시타몬(東多聞), 니시타몬(西多聞) 쿠로가네문(黒鉄門)등의 건축물이 남아 있다. 현존 12성 안에서도 혼마루어전(本丸御殿)이 보존되어 있는 것은 고치쵸(高知城)만으로, 모두가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히가시타몬(東多聞)은 무기고, 니시타몬(西多聞)은 혼마루(本丸) 경호부사의 빈소, 난도구라(納戸蔵)는 번(藩)의 중요서류장, 쿠로가네문(黒鉄門)은 의식을 치를 때 번주(藩主)가 드나드는데 이용되었다. 어전 서원(書院)은 정전(正殿), 타마리노마(溜ノ間:서원에 부속하는 방으로 다이묘(大名)들이 들어갔다·역주), 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전(正殿)에는 한 층 높게 한 조단노마(上段ノ間:마루를 높은 상단좌식, 주군과 가신이 대면하는 곳·역주)가 있고, 서쪽에는 무사카쿠시(武者隠:무사가 숨어있던 방)가 있다. 람마(천장과 상인방 사이에 채광,통풍,장식을 위해 격자와 부가 등의 판을 설치함)는 도사(土佐)의 거센 파도를 표현하고 있다. 창건 당시의 어전(御殿)은 금박을 입힌 맹장지 등 사치스럽게 꾸미었지만, 재건 시에 전체적으로 검소한 양식이 되었다고 한다.



1

오테문(鎗手門)

돌담 위에 와타리망루(渡櫓:성루의 사이를 잇도록 세워진 것·역주)를 얹은 누문(櫓門:성루 아래에 있는 문·역주)으로, 성의 정면과 어울리게 당당한 자태를 뽐낸다. 문전은 마스가타(枳形:네모진 빗더·역주)로 되어 있고, 방어 시에는 돌담 위의 틈새나 문 위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문의 2층에는 미시오토시(石落とし: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병에게 무거운 돌을 떨어뜨리는 방어시설·역주)도 있어, 적군 바로 위에서 돌을 떨어뜨리거나 창(槍)으로 찌를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전은 성내(城内)에서 거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공사 때에 남겨진 '고나'·'구'등의 각인도 확인할 수 있다.



3

테쓰문(鉄門)자취와 메문(詰門)

스기노단(杉ノ段·삼목단)에서 오른쪽 돌층계를 오르면 우치코미하기(打込ハキ:두드려 박아 이음)라 하는 수법으로 쌓여진 견고한 돌담이 눈에 띄는데, 이곳이 테쓰문(鉄門)자취이다. 당시는 대문에 다수의 소철판이 박혀있었고, 문 안에는 작은 마스가타(枳形:네모진 빗더·역주)가 마련되었던 중요한 방위 포인트이었다. 재건 시 다시 쌓여진 돌담에는 돌을 부수어 나눈 뼈자국도 남아있다. 테쓰문(鉄門)자취를 넘으면 우측 앞에 산노마루(三ノ丸), 우측위로 니노마루(二ノ丸), 좌측위로 혼마루(本丸)와 텐슈카쿠(天守閣)가 보이고, 바로 정면에는 몇 단의 돌층계 너머로 검은 칠을 한 쓰메문(詰門)이 보인다. 적군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정면의 쓰메문(詰門)쪽으로 유도되어, 돌층계를 오르지만 최후 세 방면에서 화살과 총탄에 휘말리게 된다.



4

산노마루(三ノ丸)

예전에는 산노마루어전(三ノ丸御殿)이 있어, 연중행사나 의식을 행하였다. 쇼소가베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에 의한 축성 당시의 돌담이 발굴되어, 그 일부의 유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6

우메노단(梅ノ段)

스기노단(杉ノ段·삼목단)에서 왼쪽으로 가면, 예전 마장(馬場)이 매화정원으로 되어있는 우메노단(梅ノ段:매화단)이 있다. 여기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오다이도코로(부엌)저택'자취와 성 시가의 씨족신이며 제때에 한하여 서민의 참배가 허용된 하치만구(八幡宮:오진천황(応神天皇)을 주신(主神)으로 모신 신사·역주)자취(現고치하치만구)에 소 사당이 있다. 축성전부터 성내(城内)에는 하치만구(八幡宮)만 있는데, 축성후에 스와다이묘진(諏訪大明神), 이쓰쿠시마요진(殿島明神)이 옮겨와서, 성내(城内) 3대 신사라고 일컬어진다.



7

혼마루에 이르는 길(本丸へ)

혼마루(本丸)와 니노마루(二ノ丸)를 연결하는 누문(櫓門:성루 아래에 있는 문·역주)으로, 번정(藩政) 시대에는 '하시로카(橋廊下:다리복도)'라고 불렸다. 문 안으로 침입한 적군이 용이하게 빠져 나갈 수 없도록, 입구와 출구의 문 위치가 엇갈려 설치되어 있다. 일층은 농성용 소금을 저장하는 열장이 있고, 이층은 가신, 중신 등의 대기소로 이용했다. 현재의 호칭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벽에는 숨긴 총안(銃眼)이 설치되어 있다. 혼마루(本丸)의 입구에는 복도문이 있어, 여기를 빠져 나가면 혼마루(本丸)에 이른다.